

이란 핵 문제 관련 최근 동향 및 국제 사회 반응

□ 이란 핵문제 관련 최근 동향

-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의 협력 하에 저농축 우라늄을 재농축, 가공하여 연료를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를 받아왔던 이란과 서방측의 핵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0년 2월 8일 이란정부는 연구로용 우라늄 원료(농축도 20%)를 직접 제조할 방침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하였음.
- 2월 11일 이란 혁명기념일 행사에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인 9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UN 등의 추가 제재 강화가 예상되고 있음.
 - 이란이 20%이상까지도 우라늄 농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란이 보유한 농축시설을 전면 가동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 * 농축작업이 행해질 이란 중부 나탄즈에 위치한 시설에는 실험용 공장과 주공장이 있는데, 현재 실험용 공장에 있는 1개의 원심분리기 집합체(cascade)만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란 측은 테헤란 연구로용 연료 1차 생산분이 과학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생산된 연료는 수 그램 이하의 소량인 것으로 알려짐.
 - 이란의 잠재력으로 볼 때 이란이 핵 연료봉 제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이란이 핵 연료봉 제조 기술을 보유

하기 위해서는 동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가까운 시간 내에 이란이 핵 연료봉 제조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임.

- 2월 22일 알리 아크바 사크레이 원자력 청장은 이란이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물 10개를 건립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2개의 우라늄 농축시설 건립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새 시설은 외부의 공격에 대비해 산악지대에 건설될 것이며 2곳 모두 차세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 이란은 현재 나탄즈 핵시설을 운용해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8,610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3,772개가 IAEA 감독 하에 가동되고 있는데, 최근 Qom 지역 인근 산악지대에 제2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3차례의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 10곳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자재조달 및 원료구입 등의 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국제 사회 반응

- 이란의 계속되는 강경한 대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의회는 2009년 말, 2010년 초 새로운 정유제재법안 등 추가제재법안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며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은 2월 6일 이란 정부가 저농축 우라늄을 국외에 반출하라는 IAEA의 요구에 신속히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제재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역시 중동 순방 시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군사독재화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고 제임스 존스 백악관 대변인은 필요시 정권 교체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 중부군 사령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고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30여명의 미국 여야 의원들은 힐러리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문제가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외국 회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특히, 이란 석유, 가스 부문에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기업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이란제재법(ISA)을 거론하며 기업들이 미국법을 어긴다면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2월 20일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의 제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수주 뒤 추가 제재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EU 외무장관들은 2월 22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제재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의 독자적 제재 추진과는 달리 UN 안보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최근 핵확산 방지를 위한 UN 제재에 러시아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보도가 있으나, 러시아의 입장은 단순하지 않아 보이며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제재의 대상 및 내용이 “비확산(non-proliferation)” 이라는 측면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정치적 목적 등이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중국은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대화와 협상만이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은 국제비확산 체제의 유효성을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 UN 안보리 등 논의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이 중심이 된 유엔에서의 추가적인 제재조치 통과 여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이란 주재원 제공>